

• 금동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790호)



양평 용문사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 보살상의 모습을 보이며 조형미도 뛰어난 작품이다. 높이 72.5cm, 무릎너비 43cm로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늘씬한 신체, 볼에 살이 있는 방형의 얼굴, 세밀한 머리카락과 높은 상투머리, 화려한 목걸이와 영락장식, 변형 통견식 착의에 승각기와 금구장식 등이 특징이다.

상반신이 긴 편이며 오른손은 가슴 위로 왼손은 무릎 가까이에 둔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 모습을 취하였다. 상투형 머리는 높게 올려 세우고 중간을 묶어 고정시킨 후 그 끝을 부채살과 같은 형태로 말아 올렸으며 이마선 위나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굴곡진 머리카락 등도 촘촘히 선각하여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방형의 얼굴은 수평의 작은 눈, 오뚝한 코, 입술선이 또렷한 입, 콧바퀴와 외이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귀 등 온화하고 인간적인 인상을 풍긴다.

착의법은 오른팔 위로 편삼을 걸치고 그 위에 변형통견식의 대의를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 위에 주름 잡힌 반달형 대의, 왼쪽 무릎 위 역삼각형의 옷자락, 어깨 뒤로 넘어가는 대의 끝자락 등이 특징이다. 또한 신체 전면에는 귀걸이, 목걸이, 영락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귀에는 등근 화형 귀걸이를 착용하였고, 목걸이는 등근 꽃무늬를 중심으로 구슬이 감싸듯 달려 있고, 중심 꽃무늬 좌우로 작은 화형문이 장식되어 그 아래로 크고 작은 구슬과 연봉, 장식술로 구성된 수식을 드리웠다. 또한 영락장식은 양 무릎 위에만 목걸이의 무늬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 용문사 정지국사 승탑 (보물 제531호) 및 비



정지국사 승탑은 1971년 7월 7일 보물 제531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2.15m이고, 비는 높이 1.1m, 너비 60cm, 두께 20cm이다. 승탑은 화강암, 비는 점판암이다. 정지국사는 1395년(태조4) 천마산 적멸암(寂滅庵)에서 입적·다비하였으며, 3년이 지난 1398년(태조7) 찬연한 사리가 많이 나오자 태조가 이를 듣고 정지국사를 추증했다고 한다.

승탑의 지대석은 4각이며 4매의 길다란 판석을 놓았고, 단판 26엽의 복련으로 장식되었다. 상대석은 8각으로 단판 16엽의 복련, 그 위에 8각의 탑신을 얹었으며 문비가 새겨져 있다. 지붕돌도 8각이며 끝부분에 퇴화된 귀꽃이 새겨져 있다.

비는 받침돌과 비신만 남아 있다. 비신의 상부 좌우 모서리를 깎아낸 형태로 조선시대에 유행한 비갈(碑碣)형이다. 글씨는 자경이 1.8cm로 해서체이고 음각되어 있다. 비문은 조선초 학자이자 문신인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지었다.

🌸 사찰순례 동참 보시자 🌸

이수경, 강승심, 고정숙, 변금강화, 정소영, 정애영, 권복숙, 선정지, 덕혜원, 유경희

- ✦ 캔 커 피 - 단우물 어린이집
- ✦ 빵·음료 - 신당5동 어린이집
- ✦ 떡 - 보리수 데이케어센터



🌸 토요일법회 안내 🌸

4월 25일 금강경을 통한 힐링 서광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5월 2일 생활 속의 수행 종호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강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4월 18일

제288호(週刊)



## ‘새봄맞이 야담법석’



- \* 일 시 : 불기2559년 4월 18일(토) 08:00~18:20
- \* 장 소 : 양평 사나사, 용문사
- \* 인 슬 : 원장스님, 교법사스님, 김창군교수

### <사찰순례 일정표>

시 간	내 용	장 소
08:00 ~ 09:40	정각원 출발 → 사나사 주차장	차량이동
09:40 ~ 10:00	사나사 주차장 → 사나사(경내)	도보이동
10:00 ~ 11:30	순례법회(사시불공), 성보설명	사나사
11:30 ~ 12:30	점심공양	사나사 공양실
12:30 ~ 13:30	사나사 참배(명상)	사나사
13:30 ~ 14:20	사나사 주차장 → 용문사 일주문	차량이동
14:20 ~ 14:30	용문사 일주문 → 용문사(경내)	도보이동
14:30 ~ 16:30	용문사 참배(명상), 성보 설명	용문사
16:30 ~ 18:20	용문사 → 정각원	차량이동
18:20 ~	사찰순례 회향	정각원 앞

※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동시간은 최소시간 기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찰순례 위치표>



사나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4  
 용문사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5

### ☎ 비상연락망

- 정소영(신도회 총무) 010-8585-2372
- 이민기(정각원 직원) 010-6281-1135
- 김신애(정각원 직원) 010-8551-6056
- 원진영(정각원 인턴) 010-8841-1873
- 정이담(정각원 조교) 010-6877-5050
- 권사나사 중무소권 031-772-5182
- 권용문사 중무소권 031-773-3797

## 🌻 사나사 舍那寺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奉先寺)에 속해 있다. 용문산의 주봉인 백운봉의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사나사는 신라 경명왕 7년(923)에 고승인 대경대사가 제자 용문과 함께 창건하고 5층 석탑과 노사나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절 이름을 사나사로 하였다.

고려 공민왕 16년(1367)에 태고왕사 보우가 140여칸 규모로 중건하였으며, 고려 우왕 8년(1382) 12월 24일 보우스님이 용문산 소설암에서 입적하였는데, 이듬해인 1383년에 문인 달심이 태고의 승탑과 비를 사나사에 세웠다.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불탄 것을 선조 41년(1608)에 단월 한방손이 재건하였다.

영조 51년(1773)에 양평군 내 유지들이 뜻을 모아 당산계를 조직하고 향답을 사찰에 시주하여 불광담을 마련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내에 비를 세웠고 순종 원년(1907)에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들의 근거지라하여 사찰을 모두 불태웠다. 그 2년 뒤인 1909년에 계현이 큰방 15칸을 복구하였으며, 1937년에 주지 맹현우 화상이 대웅전 15칸을 재건하고 조사전 5칸을 지었다.

1950년에 일어난 6.25사변으로 인해 사찰이 전소된 것을 1956년에 주지 김두준과 함문성이 협력하여 대웅전 산신각 큰 방을 재건하고 함씨각을 지었다. 1993년에 주지 한영상이 대웅전과 지장전을 재건하였고, 주지 화암스님이 주석하면서 포교와 교육, 기도 도량으로 일신하였으며 경내에는 도유형문화재 72호인 원증국 사석종탑과 도유형문화재 73호인 원증국사석종비가 있다.

### •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1호)



1983년 9월 19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석탑은 현재 사나사 대웅전 앞에 있는데, 높은 석축은 최근에 쌓은 것이다. 석탑은 부재가 변형되고 구성이 정확하지 않아 지금 세워진 곳이 원래 위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단부 이외의 부분은 구성이 조금 산만해졌지만 원래 재료인 화강암이 분명하다. 뚜껑돌[蓋石]과 기단부의 양식으로 미루어 고려 중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는 기단부와 탑신 상륜부로 구성된 일반형으로 상륜부의 높이는 2.8m이며, 아랫부분에 여러 매의 장대석으로 결구한 지대석을 놓아 기단부를 받치게 하였다. 기단부는 하갑석형(下甲石形)이 있어 하기면석은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윗면에 괴임 1단이 있고 경사가 있어 각우(各隅)의 합각이 뚜렷하다.

상기면석은 4매의 돌로 조립되었고, 각 면에 우주(隅柱:모서리의 기둥)와 중앙에 탕주(撐柱:지탱해주는 기둥) 1개가 짜임새 있게 새겨져 있다. 위 갑석은 1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하각(下角)이 뚜렷하며 높고 낮은 각형단(角形段)의 괴임을 조각하여 위의 3층의 탑신을 받치고 있다.

각 층의 옥신과 옥개석은 1매의 돌로 구성되었다. 각 옥신에는 우주가 정연하며 옥개석은 모두 형태가 같고 아랫면에는 추녀에 낙수 홈이 음각되어 있다. 옥개석 받침은 3단이다. 정면에는 1단으로 된 낮은 각형 받침이 옥신을 받치고 있다. 상륜은 노반석뿐으로 가운데 탕주의 둥근 구멍이 관통되었다.

### • 원증국사 석종탑 (시도유형문화재 제72호)



승탑은 승려의 무덤을 상징하여 그 유골이나 사리를 모시는 곳이다. 시도유형문화재 제72호인 이 승탑은 사나사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 후기의 승려인 태고화상 보우(1301~1382)의 사리를 모시고 있다. 국사는 13세에 회암사 광지선사에 의해 중이 되었고, 충목왕 2년(1346) 원나라에 가서 청공의 법을 이어 받았다. 충목왕 4년(1348) 귀국하여 소설암이라는 암자에서 수도를 하고 왕사·국사가 되었으며, 이 암자에서 입적하였다.

승탑은 기단 위로 종모양의 탑신을 올린 돌종형태를 띠고 있다. 높고 네모난 기단 윗면에 연꽃을 새겼고, 둥글고 길쭉한 탑신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았다. 꼭대기에는 연꽃봉오리 모양의 머리장식이 솟아 있다. 승탑을 세운 시기는 가까이 서 있는 탑비에 고려 우왕 9년(1383) 문인 달심이 이 승탑과 탑비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임을 알 수 있다.

석재가 화강암인 승탑인데, 표면엔 아무 조각도 없이 평이하고 부도 정상에만 화염문을 조각한 낮은 보주가 얹혀 있다. 전체 높이는 2.75m. 비는 비좌 위에 평평한 돌로 양쪽받침대를 세우고 비신을 얹은 다음 지붕돌을 놓았다.

• 원증국사 석종비 (시도유형문화재 제73호)



이 비는 고려말·조선초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받침돌 윗면에 비를 꽂아들 네모난 홈을 파서 비몸을 세우고, 그 양 옆에 기둥을 대어 지붕돌을 얹었다. 고려 우왕 12년(1386) 보우의 제자 달심이 세운 비로, 비문은 뒷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사뭇 비판했던 증현대부 성균제(中顯大夫 成均祭) 정도전이 글을 짓고 의문(諱聞)이 글씨를 써 1386년(우왕 12)에 세웠다. 비신 앞뒷면에 빼곡히 담겨 있는 글씨는 비교적 선명해 꼼꼼히 읽어보면 판독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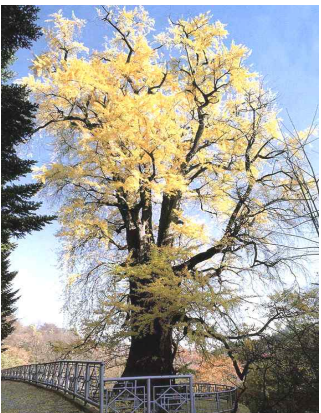
“고려국사 이용존자(利雄尊者)가 소설산에서 입적하였다. 문인들이 화장한 곳에서 사리를 얻으니…강후(姜侯) 만령(萬)이 돌을 깎아 종을 만들어 사리…를 간직해 사나사에 안치하였다…”고 적고 있다. 비의 몸체부분은 한국전쟁 때 총에 맞아 훼손이 심하다.

 용문사 龍門寺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龍門面) 신점리(新店里) 용문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奉先寺)에 속해 있다. 913년(신덕왕 2) 대경 대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우왕 때 지천대사가 개풍 경천사의 대장경을 옮겨 봉안하였다. 1395년(태조 4) 조안화상이 증창하였으며, 1447년(세종 29) 수양대군이 어머니인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의 원찰로 삼으면서 보전을 다시 지었다. 1457년(세조 3) 왕명으로 증수하는 등 중·개수를 거듭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절집이 304칸이나 들어서고 300명이 넘는 승려들이 모일 만큼 번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07년(융희 1)에 왜군의 병화로 전건물이 소실된 것을 당시의 주지 취운(翠雲)이 소규모로 재건하여 유지해 오던 중 그마저 6·25전쟁 때 파괴되어 3칸의 대웅전과 관음전·산령각·종각·요사 등만 남게 되었다. 1982년부터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지장전, 관음전, 요사채, 일주문, 다원 등을 새로 중건하고, 불사리탑, 미륵불을 조성하였다. 절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조선 전기의 정지국사(正智國師)승탑 및 정지국사탑비가 있다. 승탑과 탑비는 함께 보물 제531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경내에 수령이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이는 마의태자가 심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다.

•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 할 만큼 오래된 나무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유교와 불교가 전해질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을 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병충해가 없으며 넓고 짙은 그늘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정자나무 또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는다.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나이가 약 1,1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42m, 뿌리부분 둘레 15.2m이다.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 나이와 높이에 있어서 최고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줄기 아래에 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신라 경순왕(재위 927~935)의 아들인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심었다는 전설과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외에도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났다는 이야기, 정미의병(1907) 항쟁 때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렀는데 이 나무만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를 내어 알렸다고도 한다.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세종(재위 1418~1450) 때 당상관(정3품)이란 품계를 받을 만큼 중히 여겨져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이며, 생물학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